



| | | | | | | |
|---|-------|---|---|-----------|--|--|
|  | | 보 도 자 료 | | 수도권매립지 종료 | | |
| | | 배포일자 2022년 2월 7일(월) 총 4매 |  환경특별시 인천 | | | |
| 담당 부서 | 해양친수과 | 담당자 | • 친수공간시설팀장 권순광 ☎458-7156 • 담당자 신우창 ☎458-7157 | | | |
|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인천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순항

-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간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 준공 -
- 해안철책이 인도·자전거도로로, 군초소가 바다전망대로 탈바꿈-

해양도시로서 정체성을 살리고, 닫힌 바다를 열어 시민과 바다를 잇는 인천시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양친수공간 조성은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인천시는 남동공단 남측 해안의 군철책 철거부지와 군초소를 활용해 친수보행로·자전거도로 및 바다전망대를 조성하고, 아암1교에 부착식 해안 인도교를 설치하는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을 지난달 21일 준공하였으며, 이달 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6억 원이 투입됐다.

우선, 남동공단 남측 약 600m구간 해안철책 철거부지 활용과 도로변 차단웬스를 철거해 자전거도로와 녹지, 인도를 구분 설치했고, 단절됐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바다조망과 여가활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소래해오름공원과 남동공단 남측을 연결하는 아암1교에 연장 400m, 폭 2.0m의 부착식 인도교를 설치해 보행하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군초소와 주변철책은 철거되고, 대체초소 및 경비시설(CCTV, 해안서치라이트 등)을 보완, 그 위에 바다전망대를 조성하여 탁 트인 바다와 낙조 감상이 가능케 됐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돼 있어 주야로 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공사 전



공사 후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며, “해안 철책철거 및 기존 친수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 착공 전·후 사진

□. 착공 전, 후 전경사진

